

2002년 이후의 한일 문화교류와 민족주의의 행로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n-Japanese after 2002 and the Drift of Korean Nationalism

천정환*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은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양기적 반응을 초래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일본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민족주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청산되지 않은 식민성’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는 일본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봉쇄를 통해 ‘은밀한 모방과 중역(重譯)’의 문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종식된다. 한일 관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류’와 ‘일류(日流, Japan wave)’라는 두 단어가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역설의 새로운 국면을 이룬다. 여성·청소년과 마니아 등 오늘날 문화 수용 주체 중의 일부는 국가·민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심성, 또는 전통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탈주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 열중하는 그들은 한국 주류문화의 억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를 우회한다. 그 동력은 향유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마니아적인 추구이다. 그러나 이 우회는 완벽할 수 없다. 민족주의 자체도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향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지선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도 향유에 엉켜들 수 있음을 월드컵 응원만 보아도 바 있다.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는 지극히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 전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국의 높아진 문화적 유사성은 문화적 역설을 초래하는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동할 전망이다. 이는 다시금 정치와 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일깨워준다.

주요어: 민족주의, 대중문화, 한류, 일류, 팬덤, 마니아, 청소년문화, 하위문화, 오티쿠

*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동아시아학술원 조교수(heutekom@naver.com)

1. 서

민족주의는 타자에 대한 의식과 타자와의 상쟁을 통해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도 지정학적 제관계에 의해 수반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그것이 재생산되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집단경험을 표현하는 심성과 표상의 체계이다. 그것은 문화적 제양식을 통해 굴절되고 표현된다. 달리 말해, 민족주의의 심성구조(망탈리테)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 주권의 기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마치 경계성 인격장애처럼 자기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자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와 그와 정반대되는 비이성적 혐오를 수반하는 심리를 동력으로 한다. 미국·중국·일본은 한국 민족주의의 심성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을 통해 항상 자신의 ‘대상 a(objet petit a)’와 같은 것을 보는 듯하다.

문화는 그러한 심성의 구조를 양식화하거나 또는 반대로 중화하거나 왜곡하는 어떤 증상들이다. 문화는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민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포하지만 결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문화적 역설’이라 이름 붙이고자 한다. 특히 이 역설은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의 괴리에서 나타난다. 본고의 관심사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 민족주의의 표상과 심성이며, 그것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화적 역설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일본(인)은 무엇인가?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양국 관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국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의미하는 ‘한류’와 ‘일류(日流, Japan wave)’라는 두 단어가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역설의 새로운 국면이다.¹⁾ 먼저 그 전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문화적 역설의 전개 과정

1) 식민지가 남겨준 것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채 ‘근대’를 맞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양자의 문화적 관계도 일방적이었다. 문화적 영향과 수용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다시 말해 문화교류는 불가피하게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반영하며, 반드시 동등성 없는 차이를 내포한다. 대등하고 평등한 문화적 영향과 수용이란 환상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뿐 아니라 피식민자의 문화가 제국에 인입되어 제국의 지배에 영향을 미치고 교란할 수 있다는 식의 ‘혼종성’ 개념도 안일한 것이다. 이는 문화적 영향관계의 ‘외부’를 이루는 정치·경제적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해 눈감게 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²⁾

1) 제일 저널리스트 채명석은 역사상 두 차례의 큰 한류가 있었다면서 오늘의 한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첫 번째는 고대 야요이 시대부터 나라 시대 초기까지 1,000년에 걸쳐 총 150여만 명의 한반도 주민의 도일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 통신사의 방일이 불러일으킨 효과라는 것이다(채명석, 『단도와 활』(미래M&B, 2006), 221~228쪽).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의 소급은 오히려 비역사적이다. 백제와 조선통신사가 근대 이후의 역사에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 호미 바바 등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말한 ‘동화(assimilation, 同化)’와 ‘모방(mimicry)’, 그리고 ‘혼종성(hybridity)’ 등과 같은 개념적 도구는 식민지 시대 한일의 문화적 관계를 사유하는 데 부분적으로 유용했던 듯하다. 이 개념들은 식민지 상태, 즉 한 국가(민족)의 다른 국가(민족)에 대한 명백한 억압과 지배가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전제는 유용하다. 거기서 언어를 위시한 한 국가의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고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국 대 식민지의 이분법을 해체한다고 의도하는 데서부터 탈식민주의의 어떤 논지들은 사면적인 데로 빠져든다.

특히 한일 문화교류가 그러하다. 피식민자의 문화 수용은 문화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끝없이 참조하면서 식민자에 대한 콤플렉스(대부분의 열등감+약간의 우월감)와 피식민자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 상태에서만 이뤄진다. 식민지 조선인은 제국 일본의 문화와 지식 속에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사고해야 했다. 시인이었던 이육사(李陸史, 1904년생)와 경성트로이카의 혁명가 이재유(李載裕, 1903년생)는 저항이 불가능해지던 시기에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철저한 저항을 했다. 그들은 일본대학을 다녔다. 이육사는 경북 안동의 전통적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무장투쟁을 신봉하는 아나키스트가 되었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재유는 1930년대 중반의 조선공산당을 이끈 마르크시스트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러한 저항에 걸맞은 대가를 두 젊은 조선인에게 지불했다. 이육사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총 17번, 이재유는 무려 70차례나 일경에 의해 구금되었다.³⁾ 그리고 결국 1944년, 제국주의 일본은 이 두 청년을 각각 북경과 서울의 감옥에서 살해했다. 그들의 삶과 삶은 근대 초기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침략과 착취에 저항하고 나아가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 청년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본인을 스승으로 삼아 일본어 책을 읽어야 했다. 그들의 삶과 삶은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거대한 문화적 역설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문화와 대학은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 한국인들의 새로운 삶의 저수지였고, 특히 ‘근대’와 서구를 접하는 거의 유일한 창(窓)이자 통로였다.⁴⁾ 단지 이재유와 이육사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 전체가 저항과 동화 사이의 문화적 역설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식민지 시기

3)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1930년대 서울의 혁명운동』(푸른역사, 2006). 이것은 加藤哲郎·伊藤晃·井上學, 『社會運動の昭和史』(白順社, 2006)와 같은 일본 책에도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인터넷사이트 ‘민족시인 이육사(<http://264.pc.kr>)’ 등을 참조.

4) 식민지 조선인의 다양한 일본 책 읽기 양상에 대해서는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푸른역사, 2003), 3장 참조.

의 문화적 민족주의⁵⁾는 식민지인이 만들어 스스로에게 유포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지만, 그 자체가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것이었고 제국의 지배를 결국 승인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이나 서구에서 건너오는 ‘근대’의 중간 기착지로서 일본이 역할은 ‘민족’의 말과 글을 ‘말살’하고 인민의 전통적 문화를 부인하면서 이뤄졌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총동원 체제’가 적용된 1938년 이후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3월에 ‘조선 교육령’을 개정해 일본과 조선의 학제를 완전히 같게 만들고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그 때까지 주변어이자 ‘준국어’였던 조선어와 일본어(‘국어’)가 병용되는 이중어정책을 폐기함을 의미했다.

식민지 시기의 ‘지배’ 또는 ‘강점’의 시간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인간이 살게 된 이래 계속 교류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두 나라 사이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특이하고도 강렬한 ‘순간’이었다. 그 길고도 짧은 ‘순간’은 길게 영향을 미쳤다. ‘제국 대 식민지’라는 문화-정치의 구도는 1945년의 일본 패망과 한국전쟁으로 일거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글을 쓰기 위해 먼저 일본어로 사고해야 했던 근대인은 제국의 문화에 길들여졌던 식민지의 문화 엘리트만은 아니었다. 정비석의 소설이자 한형도가 영화로 만든 『자유부인』(1954/1956)에 묘사된 것처럼 근대 초기 새로운 인공어로 형성되었다가 그 사용이 유보되었던 한글을 읽고 쓰기 위해 인민은 따로 노력해야 했다.⁶⁾

5) 식민지 시기의 정치사상이자 민족적 동원논리로서의 다양한 ‘문화’ 담론과 문화 운동론에 대해서는 M.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나남, 1990);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소명출판, 2006), 226~237쪽;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역사비평사, 1992) 등의 논의를 참조.

6) 이종연, 『책, 사슬에서 풀려나다』(해안, 2005)는 해방기 독서문화의 궤적을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은밀한 모방과 중역의 시대

1950~80년대까지 남한에서는 ‘은밀한 모방과 중역(重譯)의 시대’가 전개된다. 이 시기 한국 학계와 대중문화계는 일본의 영향에서 ‘공식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일본 학계나 문화산업을 모방하고 때로는 ‘베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학계를 예로 삼아보자. 한국 학계는 특히 4·19 이후 각 영역에서 민족적 주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식민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근대 학계가 성립되고 대학의 학제가 형성되는 데 기여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꽤 논의가 되어 있다. 즉, 얼마나 많은 미국 유학생과 미국 자본이 대학과 학계의 성립에 기여했는지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의 유제가 한국 학계와 그 제도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1940년대 초에 독일 유학생의 수는 무려 3만 명에 달했고 해방 당시 독일 유학생 경력자는 2세대 도미 유학생의 100여 배나 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신처와 옛 연고지를 찾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한다. 그러나 1950년대의 일본 유학생의 수는 전혀 집계되지 않았다.⁷⁾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식민지 치하에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학문 분야를 형성했을까? 과연 남겨진 일본 책이나 베낀 책들이 ‘민족 교육’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을까? 일 어로부터 중역된 서구의 책과 정당한 주석 없이 인용된 일본 책은 대한민국의 ‘지’를 형성하는 데 음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반면 서울대에 보존된 경성제대 도서관 서고가 1945년 이후 거의 5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역사와 어떤 거울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제국주의일본은 ‘복귀’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그 국가적 이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7)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절대악이(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은 함부로 다뤄도 좋다는 사고가 힘을 발휘한 것 아닌가?

베끼기나 방치하기는 ‘문화’에 대한 식민지인의 ‘복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수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남아(일제 잔재)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것을 ‘봉쇄’함으로써 잔재가 그대로 보존되게 만들었다. 식민지 시기를 똑바로 바라보는 대신 ‘없었던 일로 묻어두자’라는 공모는 은밀하고 광범위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작동한 원리는 변형되어 ‘청산되지 않은 식민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민족주의는 그러한 봉쇄를 통해 ‘은밀한 모방과 중역’의 문화를 초래했다.

4·19혁명과 5·16쿠데타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압력과 국내 자본의 요구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이때 결정된 큰 원칙은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경제자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일본 (대중)문화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고급문화는 괜찮지만 대중문화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새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당연히 이승만식 대일 외교는 이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의 출범은 이런 점에서도 새 출발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움직임은 배경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막연한 동경은 4·19혁명이 있던 1960년 가을의 중요한 트렌드였다. 《사상계》도 ‘전국에 몰아치는 일본풍’에 한 꼭지를 할애했다. 이 글에 의하면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반일 절대주의를 해체하고 마치 친일주의의 부활이라도 되는 양” 하다고 했다. “전국의 다방과 뼈에서는 일본 노래가 물결치고”,

8) 예컨대 1960년대까지 가장 유력한 문학평론가의 한 사람이었던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1940년대를 일컬어 “수치에 찬 암흑기요 문학사적으로는 백지”이기에 없었던 일, 즉 “부랑크(blank)로 돌리자”라고 했다.

숙녀들은 ‘조오리’를 신고 거리를 활보하며, 서점마다 일본 문학작품 번역물이 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계》의 필자는 예리하게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우월감, 반발감이 섞인 위험한 것”이라 분석하고 일본 노래를 듣는 층이 두 부류라고 했다. 하나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층’이며 또 한 부류는 ‘은근히 일본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가진 중년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번째 부류가 “민족적 열등감과 투철하지 못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다.⁹⁾

일본 대중문화가 일반 민중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것과 달리, ‘고급문화’에 속하는 일본 문학의 도입은 지식인과 대학생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다. 4·19 직후에 번역되기 시작한 일본의 전후문학이 한국 작가와 문청들에게 끼친 영향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약관의 나이에 동인문학상을 받고 한국 문학사에서 ‘김수성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김승옥도 예외가 아니었다. 뒷날 김승옥은 대학생 때부터 소설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그때 번역되기 시작하는 일본 소설을 읽고 받은 충격이랄까 자극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동경대 불문학과를 중퇴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후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으며,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등이 자기 시대 이야기를 아프고 절실하게 쓴 데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¹⁰⁾

“일본 자본이 들어오고 일제 하청 공장이 세워지려 하고 일본 문학이 ‘교양 있는’ 대학생들을 매혹하고 있는 판인데 일본 대중가요 좀 들으면 어떤가?” 위의 글에서 《사상계》의 편집자는 “우리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지는 것은 무역과 산업 기술의 측면과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협조이지, 퇴폐문학과 저속한 대중음악을 통한 문화적인 침투를 허용하

9) 『국내 동향』, 《사상계》, 제88호(1960년 11월호).

10) 『좌담: 4월 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 문학』(창작과비평사, 1999), 30~31쪽.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결국 한국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본에 대해 모순적 입장을 취해야 했던 것은 무리하게 한일회담을 진행했던 박정희 정권의 입장이었을 뿐 아니라 그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상계》와 같은 매체에 포진한 비판적 지식인의 입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 영화와 대중가요 등에도 한국을 집어삼키고 말았던 ‘사무라이 정신’과 제국주의적 침략 논리가 들어 있다는, 분명 히스테릭하기도 한 인식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지배했다. 대중문화에 대한 엘리트층이 개재된 이러한 인식이 민족적 혁명이 일어난 1960년대 초에 정초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모순적인 동시에 늘 불공정했다. 대중문화는 막아두었지만 지식인과 기업인들은 일본에서 무엇인가를 들여오지 못해 안달이었고, 실제로 엄청나게 들여왔다. 술에 취하면 만주군 군가를 불렀다는 박정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는 식민통치 시절에 대한 노골적인 문화적 향수마저 갖고 있었다.

요컨대 일본 대중문화를 금지한 한국 정부의 반일주의¹¹⁾는 기실 그들의 반민족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행태를 위장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러나 이런 모순적인 입장은 1960년대의 주체들뿐 아니라 무조건 배일하지 않고 일본과 뭔가를 하려 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문화적 역설이기도 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은 일본 문화의 유입(‘침투’)을 신식민지적인 지배나 주체성의 상실로 개념화하고, 일본 문화가 선정적이며 저질스러운 것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널리 유포했다.

20세기가 개막된 이래 1970~1980년대는 한국의 삶과 문화가 일본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시기임에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그것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증역과 은밀한 베끼기’라는 문화적 역설의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러한 예는 어떨

11) 정치적 차원에서의 반일심리와 정치담론의 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재호, 『한국민족주의와 반일』, 《정치비평》, 2002년 하반기, 128~148쪽 참조.

까. 1970~1980년대의 한국 운동권 대학생들은 2~3달 만에 속성으로 일본어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한자가 많은 일본 좌파 서적을 읽어나갔다. 그 중에서 널리 읽힐 만하다고 생각한 책들은 번역되었는데 당연히 대부분 출판사와 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해적’ 번역이었다.¹²⁾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중·민족운동과 독자적인 청년문화를 구축하고 반민중적·반민족적인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대항체계모니를 창출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다.

대중문화의 권역에서도 베끼기는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방송·출판·패션·영화·만화와 신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것 없고 프로그램 형식이나 조직적 양식 자체를 일본을 참조했던 것이다.¹³⁾ 이 가운데에는 명백히 표절로 이름 붙여야 할 것도 있고 변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베끼면서 동시에 은폐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대한민국의 현대 문화사가 지배 대 피지배를 기축으로 해서 파생되는 선과 악, 우월과 열등의 원리가 근대 이후 한일 문화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였을 뿐 아니라 경쟁하고 대립하는 민족국가 사이의 문화적 접촉에 간섭력으로 작용하는 원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2) 더구나 1980년대까지 한국에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도 있었고 정부가 정한 ‘금서목록’도 존재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출판사와 출판물 자체가 ‘언더’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1980년대의 검열제도를 둘러싼 군사정권과 지식인들 사이의 헤프닝에 대해서는 김언호, 1997, 『책의 탄생 - 격동기 한 출판인의 출판일기: 1985~1987』, 한길사; 천정환, 2006, 『1980년대 문학과 매체』, <<문학수첩>>.

13) 이연 외,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나무와 숲, 1997)는 대중문화 각 영역에서 벌어진 모방과 표절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도정일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왼손으로는 퇴짜 놓기, 오른손으로는 허겁지겁 받아먹기’라 이름 붙이고 이런 이중성이 생산과 수용 양면에서 부패구조를 형성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책은 ‘베끼기’의 범주 안에 비양심적인 표절과 인정 가능한 영향을 구별하지 않고 몰아넣고 있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3. 일본 문화 수용의 현재와 민족주의의 작용

1) 문화 수용의 젠더, 그리고 민족

2002년 이후 한국은 일본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란 무엇인가?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린이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웃의 토토로>나 하라 게이지의 <짱구는 못말려>를 보며 자라나고 있다. 10대는 어디서든 ‘망가’를 접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일본제 포르노가 넘쳐난다. 일어 학원에도 대학생이 줄을 잇고 일본 문화에 빠진 20~30대는 매일 ‘일드’ 시리즈물을 본다. 관련된 인터넷 동호회도 어디서나 성황이다. 2~3년 전부터는 일본 문학도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작품이 1990년대로 이래 여전히 많이 읽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오쿠다 히데오, 미야베 미유키 같은 작가의 작품도 엄청나게 많이 읽힌다. 이렇게 ‘일류’가 새삼스럽게 한국 문학의 주제로 떠오르자 작가와 평단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¹⁴⁾

눈에 두드러지는 이러한 문화 수용의 ‘일류’와는 별개로 엄청난 규모의 한국인들이 관광차 일본으로 간다. 근자의 ‘엔저’는 특히 결정적이다. 질 좋은 일본제 물건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서울 시내에는 일본식 주점 이자까야(居酒屋)도 급격히 늘어났다. 소비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자영업의 변화는 입맛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¹⁵⁾ 상대적으로 원화의 구매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4) 천정환, 『2000년대의 한국 소설독자 II』, 《세계의 문학》, 123호(2007년 봄호); “니혼웨이브”, 《한겨레21》, 2007년 1월 26일 제645호; 《문학동네》, 2007년 여름호; 《21세기 문학》, 2007년 가을호의 기획기사들을 보라.

15) 이 또한 저널리즘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쥘인’: made in Japan의 대공습”, 《헤럴드경제》, 2007년 6월 22일자 등을 참조.

<표 1> 1998~2005년 외국인 입국자 수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외국인 입국자 수	4,250,216	4,659,785	5,321,792	5,147,204	5,347,468	4,752,762	5,818,138	6,022,752
미국인	405,735	396,286	458,617	426,817	459,362	421,602	511,170	640,050
일본인	1,954,416	2,184,121	2,472,054	2,377,321	2,320,837	1,802,542	2,443,070	2,440,139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표 2> 2000년대 이후 한국인의 외국 출국 현황

	총 출국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일본으로의 출국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00년	5,508,242명	27%	1,064,390명	13%
2001년	6,084,476명	10%	1,133,971명	7%
2002년	7,123,407명	17%	1,271,835명	12%
2003년	7,086,133명	-1%	1,459,333명	15%
2004년	8,825,585명	25%	1,588,472명	9%
2005년	10,080,143명	14%	1,747,171명	10%
2006년	11,609,879명	15%	2,117,325명	32%
2007년(9월까지)	9,076,829명	18%	1,749,479명	24%

일본의 의식주 모두 매력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문화는 한국인의 일상문화와 삶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오늘’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인간이 살게 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한반도 주민에게 동해바다가 가장 작아졌던 것은 해방 직전이다. 1939년에는 96만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했고 해방 당시 제일 조선인은 무려 240만여 명에 달했다 한다.¹⁶⁾ 제일 유학생 수도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일본에

16) 제일코리아의 역사작성위원회, 『제일 한국인의 역사』, 신준수 외 옮김(역사넷, 2007).

서 배우기 위해, 또 강제동원과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거주했던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인은 광기어린 천황제 파시즘이나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¹⁷⁾의 화신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야만스럽고 야비한 ‘쪽발이’와 공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일본인은 대등하고 수평적인 이웃나라 사람으로서의 일본인/한국인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것인가?

한국 측에서 볼 때 ‘과거의 망령’과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빠’¹⁸⁾ 들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민족보다 일본인을 싫어하고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갖는 한국인들도 여전히 재생산하고 있다. 증대되는 교류가 야기하는 현실의 ‘문화 접변’ 위에 여전히 애증과 교착된 심사가 떠 있다. 언제나 일본 문화를 수용하는 일은 오스트레일리아나 멕시코 문화를 수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증오’는 줄어들어지고 있다.¹⁹⁾ 문화 수용과 그로 인한 문화 접변은 결코 민족 대 민족(국가 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언제나 계급과 젠더 구조와 함께 ‘과잉 결정’된다. 한류와 일류는 각각의 사회 속에서 다른 젠더, 세대의 문화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한일 문화 접변의 속내용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의해 국민국가 단위로 생산되는 문화를 다르게 전유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있어 젠더는 ‘민족’과 가장 참여한 접점을 만들어낸다. ‘일본군 위안부’나 ‘이승연 누드’ 등 무수한 과거의 예를 들 수 있겠지만, 2007년 6월 <미녀들의 수다>라는 KBS 텔레비전의 인기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일본인 여성(유학생)이 폭로한

17) ‘탈아입구’로 압축되는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뜻한다.

18) 인터넷에서 주로 쓰이는 비속어로, 일본 문화에 열중하는 네티즌을 비하해 가리키는 말이다.

19) 역사 인식과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도 차이와 특히 일본을 방문해본 한국인의 대일 인식 변화를 다룬 논문으로는 金居修成,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37집(2000년).

한국인 대학 강사의 성희롱 사건도 이러한 예가 될 것이다. 성희롱 가해자인 한국인 남자가 한 ‘유혹(?)’의 말은 “일본 여자는 섹스를 좋아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한다. ‘일본 여자는 헤프다’라는 남근적 표상은 일본 문화와 한국 남성이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한국 남성들은 일본 대중문화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것이라는 민족주의의 선입견을 가진 채 일본제 포르노그래피의 남성우월주의를 학습하고 향유한다. 이는 일본인과 일본 여성을 보는 어떤 시선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 대중문화를 금지해온, 그러면서 음성적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흡수해온 한국의 민족주의는 성적 욕망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이 불러일으키는 위반의 쾌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대 민족의 지배 대 피지배 관계를 남녀 관계로 전치하는 무의식이다.

<미녀들의 수다>의 경우, 상당수의 한국 네티즌들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가해자는 직장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을 공격하는 글도 적지 않았고, 폭로한 피해자 일본인 여성은 ‘2차 피해’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근거는 과거에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여성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없이 성폭행 당했다는 식이었다. 민족주의는 복수심과 정복욕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 실현한다. ‘성폭력’의 구조에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거울의 양면을 이룬다.²⁰⁾ 또 성희롱 가해자를 비판하는 글 가운데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유도하는 심리구조에 따라 그러한 성희롱이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러한 심리는 조승희 사건에 대한 집단 패닉 상태에서 극명하게 표현된 바이기도 하다. 개인과 ‘국민’을 동일시하는 심리는 민족주의의 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남성화하는 전유와 달리 문화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한일 여성문화 사

20)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미군 부인에 대한 강간으로 복수한다는 즐거리를 지닌 남정현의 『분지』는 1960년대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작품으로 꼽힌다. 박정희 정권은 남정현을 반공법으로 구속했다.

이의 교류는 ‘문화 접변’의 교과서적 의미를 오히려 잘 보여준다. 예컨대 20대를 위한 상투적인 멜로드라마였던 <겨울연가>는 일본 사회의 콘텍스트 속에서 다른 삶의 조건을 지닌 열렬한 수용자들에 의해 다른 텍스트로 거듭난다.²¹⁾ <겨울연가(冬のソナタ)>의 수용자인 일본 중년 여성들은 자국의 남성 지배권력이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판타지를 좇아 한국에 온다. 물론 이는 절박한 판타지의 실현이다. 근경에 처한 여성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문화 구조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럴 때 이 텍스트는 원본의 콘텍스트와 무관한 의미를 창출한다. 그렇게 무관할수록 원본과 달리 수용된 사회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은 오로지 수용자들에 의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의 한류 시장에서 <겨울 소나타> 이외에 ‘몸짱 아줌마’로 통하며 다이어트에 성공한 전다연 씨의 『DVD付 モムチャンダイエット』(강담사)라든가 한국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원작소설을 번역한 『私の名前はキム・サムスン』이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여성 경험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²⁾ 물론 한국식 때밀이, 화장법 등은 오래 전부터 일본 여성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상품이었지만 ‘몸짱 아줌마’라든가 ‘노처녀’와 같이 분명하게 사회적 관계의 코드가 새겨진 상품의 교류는 중대되는 삶의 공통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이른바 ‘된장녀’가 온갖 민족주의적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자신의 욕망(명품, 스타벅스 커피)을 실현하려는 것에 비견될 만하다.

민족은 어디까지나 성인이며 남성이다. 남성 지배권력과 ‘국가’는 외국 문화 수용자의 탈주를 기존의 질서 속으로 회수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결국 지배를 보충하고 합리화하는 데 귀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문화교섭 자

21)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책세상, 2005);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등.

22) www.amazon.co.jp 등 참조.

체는 민족주의보다 새롭고 탈규범적인 것을 생산하게 된다. 가부장·국가
의 질서 속으로 다 회수되지 않고 남은 이 생산의 잉여는 교류가 증대될
수록 더 커질 것이다.

2) 세대 문화로서의 일본 문화 수용

앞에서도 열거했지만, 오늘날의 일본 문화 수용은 주로 문학·영
화·TV·만화·음악 등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을 통해 파악되고 의미
화된다. 물론 개별적 학문 영역이나 전문적 기술지식의 장에서 일본과의
접촉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이는 자율성을 구축하고 있어 전체의 ‘문
화’로 파악되기는 어렵다.

우선 문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²³⁾ 오늘날 한국 문학의 독자는 줄
어지고 있지만 일본 문학의 경우는 다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작품이 1990년대 이래 여전히 많이 읽히는 가
운데 여기에 오쿠다 히데오, 미야베 미유키 같은 작가의 작품도 엄청나
게 많이 읽히고 있다. ‘일류’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일본
소설은 대부분 대형서점에 전용코너까지 설치되어 있고 베스트셀러를
휩쓸고 있다.” “2006년 출간된 일본 소설은 581종에 177만 권으로 번역
소설 3권 중 1권²⁴⁾에 이른다. 한국 소설은 4년 전까지 판매량 상위 100
위 안에 40권이 들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그 수가 23권으로 급감한 반
면 일본 소설은 30권이 넘었다. 한국 문학이 잃어버린 독자를 일본 소설
이 차지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늘의 이 일류는 200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된 것이다. 1997년에 143종에 점유율 3.46%였던 일본 문
학은 2006년에 580종, 점유율 6%로 높아졌다.

일본 문학에 대한 태도는 한국 문학 장 내부의 세대와 노선을 갈라놓

23) 일본 문학수용에 관련된 대목은 천정환, 『2000년대의 한국 소설독자 II』, 《세
계의 문학》, 123호(2007년 봄호).

24) <집중취재: 문화계 일본바람>, MBC TV, 2007. 1. 25. 21:00.

는 경향이 있다. 2007년 5월, 판타지와 미스터리물 등 ‘장르문학 전문’을 표방한 《판타스틱(Fantastique)》이라는 새 (문학)잡지가 창간되었다. 그야말로 ‘죽을 쑤는’ 기성 문학계의 문예지와 달리 이 잡지 창간호는 20대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으며 2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이 잡지의 창간 특집 인터뷰는 한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터뷰에 등장한 것은 일본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와 기시 유스케였다. 《판타스틱》은 한국의 주류 기성 문학과 대결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탄생 자체가 정치적 계몽주의+순문학주의를 본령으로 하는 한국 ‘근대문학의 죽음’을, 또한 새로운 문화적 세대의 등장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닌 듯하다. 『하얀 거탑』과 『남쪽으로 튀어』 같은 소설은 10~20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거나 ‘엽기’적인 마니아 상품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작가 개인의 명성이나 TV 드라마의 인기와 같은 외적인 이유 때문에 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일본 서사물의 영향력이 한국 서사시장에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 한국 문학계는 가라타니 고진이 제기한 ‘근대문학의 종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근대 문학의 기능과 존재 요건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문학의 경우를 들고 “한국에서도 (근대) 문학이 종말을 맞았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문학에서의 일류는 386세대 이후의 신세대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일본 대중문화 수용의 일부이다. 이 세대는 1999년 이후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인터넷 문화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라는 공통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열렬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의 1세대는 1990년대 초에 고교생이나 대학생 사이(1970년대 초중반생)에서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 영화(+아니메)와 음악에 대한 수용자로 등장해 PC통신 동호회 등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자체가 1990년대에 들어 다양해지고 새로운 면모를 갖기 시작한 대중문화의 징후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아직 소수였다. 2세대는 이에 비해 인터넷이 본격화되어 주류적인 일본 영화와 음악 이외에 드라마와 다양한 형태의 일본 하위문화(호러, 엽기, 포르노, SF 등에

대한 접근까지 용이해졌을 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본 문화 수용자의 연령대는 30~40대에까지 확대되고 그 내부에서 젠더와 연령대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2007년 10월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일본 관련 카페(동호회)를 검색하면, ‘일본 드라마’를 소재로 한 카페가 1,147건, ‘일본 여행’ 1,148건, 일본 영화 322건, 일본 만화 1,120건, 일본학 162건, ‘일본어’ 4,459건, 일본 소설 60건, 일본 음악 702건이 검색된다.²⁵⁾ 그 외 야오이, AV, 일본 음식(요리), 코스프레, 일본 방송, 일본 동영상 등을 키워드로 하는 동호회 카페들이 있다. 문학의 경우 대중소설이나 장르소설에 그치지 않고 전 소설 영역에서 일류의 영향을 받고 있듯 일본 문화의 수용도 단지 주변적인 하위문화나 인터넷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대중문화 전체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다메 칸타빌레>나 <하얀 거탑> 같은 드라마가 국내 (공중파방송국이 운영하는) 케이블 TV에서 방영된다거나 최근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폐막작으로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종결편이 선택된 일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른바 ‘포스트386세대’가 처한 경제적·문화적 상황을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한, 그리고 명징하고 강렬한 감각을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의 산물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현실 정합성’ 자체보다 표현과 감각의 우선성이 예술의 지배적 원리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재패니메이션, 일본 TV 드라마, 장르 소설과 만가 등의 서사시장에서도 탄탄한 구성, 다양한 소재, ‘특유의 가벼운 진지함’ 등이 일본제 서사물이 인기를 끄는 내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어떤 일본제 문화상품은 한국의 젊은 세대의 감성에 더 맞는다는 것이다. 소설만 봐도 확실히 한국 주류 소설가의 작품과 오늘날 젊은 독자와의 거리는 도쿄와 서울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인다. 일본 소설은

25) 이는 모두 카페 제목과 첫 소개란에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한 카페를 기준으로 검색한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개인 펜페이지라든가 일본학(일문학, 일본사, 일본어)과 관련된 페이지도 따로 있다.

‘가볍고 명징한 감각’을 제공하는 데 더 유능한 것이다. 물론 이는 가라타니 고진의 말처럼 문학이 만화화(?)된 시대, 즉 ‘혁명의 시대’가 종언함으로써 (근대)소설이 역할을 잃어버린 시대성 자체를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각의 동시적 공간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넓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4. ‘민족’의 간섭과 향유의 작용

1) 민족주의적 거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중파 방송에서 일본 드라마가 직접 방영된 일은 없으며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²⁶⁾ 또한 수용자층이 상당히 두터워졌는데도 아직 일본 문화는 청소년이나 20~30대 젊은 세대, 그리고 마니아들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이다.

하지만 한국의 신세대와 청소년들이 ‘콤플렉스 없는 세대’로 일본 문화를 수용해 완전히 혼종화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²⁷⁾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오히려 일본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청소년들은 특정한 하위문화 전략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적 정체성(Koreanness)’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적 차원에 국한시켜 소비하려 시도하고 있다²⁸⁾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 즉, 청소년들은 ‘집단적’ 역사적 배경에서 ‘개인적’ ‘하위문화적’ 취향을 분리하며,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는 주

26) 일본 문화 수입 반대에 관한 지배 담론들에 대해서는 장용걸,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을 통해 본 ‘반일’의 역설적 의미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5권(2000년 12월).

27) 장용걸, 2005, 『한국 청소년들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일고찰』, 《일어교육》, Vol. 33.

28) 윤경원·나미수,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2005년 2월).

류문화로부터의 변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수용 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요한 방도는 팬덤의 형성이나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²⁹⁾ 동의할 만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목은 이 ‘재정교화’에 작동하는 힘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내부에서 진정성과 소수성을 특성으로 하는 문화 자본을 축적해가면서도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한국 주류문화와 담론의 간섭을 의미한다. 그 간섭력은 민족주의의 힘과 결부되어 있다.

2007년 5월 29일, ZARD라는 그룹의 인기 여가수 사카이 이즈미가 사망하고 그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사카이 이즈미는 1990년대 J-POP을 풍미한 뮤지션이었고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팬들이 있다.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나오고 추모한다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그에 대한 ‘악플’도 여럿 달렸다. 다음은 그 중 ‘네이버’에서 가장 높은 ‘추천’을 기록한 댓글이다.

① ㅋㅋ 웃기지 않나????????

조회 209, 추천 26, 2007/05/28 20:28, rhclsla IP 58.238.xxx.27

일본가수 한명 죽었는데 미친 일빠새리들 초단결해서

게시판을 점령했네. 그렇게 미친듯이 좋으면

영결식에 가보든가. 이민을가든가 왜여기서 개갑쳐싸대는거야

참나 우리나라 서태지 죽어도 일본애들은 관심도 없을걸?

여기한국이야 정신차려 미친것들아

29) 김현미,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 《한국 문화인류학》, 36집 1호(2003년 5월)는 1999년 이후 일본 문화 인터넷 동호회 운영자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일본 문화 팬들이 일반인과의 ‘구별’과 동호회 내부에서의 ‘차별적인 위계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 고찰한다. 이를 주로 팬덤의 의미로 분석해 ‘진정한’ 팬으로서 자기를 의미화하는 수용의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② 학교 다닐때 일본노래 듣는 놈들 치고

조회 141, 추천 16, 2007/05/29 05:56, pj9165 IP 203.228.xxx.230

인간관계 원만한 놈 없었다.

죄다 짜질대고 애들한테 맞고 다녔었지.

두 글은 일본 문화 수용자를 이해할 수 없는 민족주의의 심성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흔히 인터넷 댓글은 민족주의적 배설의 도구로 사용된다. 민족주의는 탈민족주의나 반인종주의, 또는 평화주의와 같은 사고에 비해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①은 특히 일본 문화 수용자를 비하하는 ‘일빠’ 같은 중요한 키워드와 함께 ‘우리나라’, ‘여기’, ‘한국’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구별될 수 없는 정황을 갖고 있다. 분단은 양자를 구별하게 할 유력한 역사적 계기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족주의를 매개하는 가장 강력한 표상이다. 특히 2002년 이후 새로운 세대의 구호에 의해 ‘대한민국’이 민족주의·국가주의의 유력한 표상이 된 현실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족과 지리적 특수성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正體性)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남한 주민의 대다수는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하면서 정통성을 지닌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 생각한다.³⁰⁾

30) 송실대 강원택 교수의 조사 결과에 의해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78%라 한다. 이에 대해 강원택은 “남한만의 민족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라며 이를 ‘대한민국 민족주의’라 지칭했다(강원택 등, “한국인은 누구인가: 창간 40주년 기념 특집 여론조사”,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 ‘현실적인’ 대중의 다수는 민족과 국가(대한민국)를 융합시키면서도 ‘통일’은 떼어놓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가장 긍정적인 경우에 대중이 북한을 ‘동포’로서 포용할 수는 있어도 이전 세대(의 일부)처럼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거나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와 국가의 융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물론 개념과 유래가 다르지만 담론 속에서 사용되는 맥락적 의미가 중요하다면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데 더 결정적이다. 양자가 한국에서 구분되지 않는 ‘한 덩어리’인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민족이 자기완결적이라는 신화(神話)와 그 신화가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반도의 지리적 조건, 상대적으로 높은 인종적 유사성과 언어적 통일성, 그리고 여타 다민족 정치체들이 겪은 심각한 종족적 내분을 중세 이래 거의 겪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이를 보증한다. 그리고 근대 이후 강력한 ‘외세’에 의해 촉발된 근대 민족주의가 ‘국가 회복’을 지상의 이데올로기로 삼음으로써,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국가주의를 학습하고 ‘민족중흥’을 기치로 건 박정희 체제에 의해 민족과 국가의 융합은 한국인의 심리에 깊이 내장되어버린 ‘심리적 현실’의 일종이 되었다. 물론 분단과 개발국가의 억압성이 민족과 국가를 따로 떼어놓고 민족주의 자체에 진보적인 의미가 부가되도록 했지만 오늘날에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은 재생산되고 있다.³¹⁾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사고 너머(또는 이하)에 있는 사고로, 청소년과 대중문화 수용자들에게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이나 주류적인 대중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지 ‘보수화’나 경제제일주의와 결부되어 새로운 내용의 반복주의가 공고해지고 ‘반통일’이 대중적 슬로건이 될 수 있음도 말해준다.

- 31) 천정환, 『‘황우석 사태’의 대중현상과 민족주의』, 《역사비평》, 76(2006년). 특히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은 두드러진다. ‘1민족 1국가’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근대를 완성하는 지상의 과제라 생각하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은 민족주의·국가주의를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자들이다. 그들에게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중의 복리나 항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통일 ‘국가’의 건설에 있다. 이러한 사고구조는 좌우익에 포진한 통일지상주의자의 차이를 극적으로 무화할 뿐 아니라 통일주의자들의 ‘진보성’을 제한한다.

문화의 기제들(광고, 드라마, 뉴스 등에 의해 매일매일 퍼부어진다.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IMF 경제위기 직후의 ‘금 모으기 운동’이 민족주의를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한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실려 있다. 또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응원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는 공동체의식 그 자체로서 기능하거나 젊은 세대의 공동체 지향성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움직이고 있다. 민족주의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외관을 갖추어 젊은 세대에게 주입되고 공유된다.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냉소를 받는 시대에도 젊은 세대는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언제나 이데올로기의 포획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의 청소년이나 청년 계층은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모순을 겪어내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세계화’가 한국에 야기하는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적 삶을 규정하는 거시적인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는 첫째, 세계화가 야기하는 삶의 변화 대(對)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로 영위되는 문화적·삶 사이의 모순이다.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조기유학을 가야 하고 영어 광풍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일 것이다. 둘째, 세계화의 국내적 효과로,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효과이다. 경제 양극화는 곧 교육과 문화의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남한 지배계급 블록의 이데올로기이면서 동시에 피지배계급의 불안을 반영하고 또 그 불안을 지배·유지하는 데 악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통틀어 여전히 (표면적으로) 가장 강하게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반미·반일을 체제유지의 정당성과 등치시켜온 북한 정권과 ‘세계화’의 다층적 현실에 삶을 위협당하는 남한 중하층의 일부이다(황우석 사태를 보라). 민족주의는 불안을 먹고 산다. 반일은 반미에 비해 가장 쉽고 편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일본이 우경화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잠재적 공포는 민족주의를 현실정합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2) ‘일빠 짜질이’와 마니아

한편 ②도 ‘혐오’를 표현하고 있지만 초점이 약간 다르다. 그들이 ‘짜질’하다거나 ‘맞고 다녔다’는 말은 그 자체로 과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일본 문화 수용자 중의 일부가 잠재적인 마니아로 또는 더 나아가 오타쿠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에는 ‘일빠’와 ‘오덕후’, 그리고 ‘왕따’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다.³²⁾

오타쿠는 공동체에서 격절된 존재, 그리고 정상성을 초과하는 섹슈얼리티와 취향의 주체를 의미한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오타쿠 문화의 토대가 취약하고 한국 문화의 산물은 마니아화의 견지에서 볼 때 대상성이 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네티즌과 청소년에게 일본 문화 마니아는 이중 삼중으로 불편한 존재인 것이다. 불편함의 중대한 원인은 일본적인 것에 대한 강한 선호가 불러오는, 그리고 그것과 주류적 교육이 일으키는 충돌일 것이다. ‘오덕후’들이 ‘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분절화·분리화”³³⁾를 통한 수용으로 ‘한국적 정체성’의 추구하고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따’는 보여준다. 간혹 어린 ‘일빠’들 가운데에는 웹

32) ‘오덕후’는 오타쿠를 음차한 네티즌 은어이다. 예컨대 ‘왜 일빠랑 달빠들은 대부분 왕따일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지식인’에 올린 질문을 보면 ‘일빠나 달빠의 99퍼센트는 왕따라더군요. 우리 반에도 왕따가 있는데 일빠예요. 만화 캐릭터 명언을 책상 위에 써놓지 않나, 그림을 붙여 놓지 않나, 페이트 야짱이라고 했더니 발악을 하지 않나. 그리고 만화를 한국어로 방영한다니까 짜질대고 무슨 피해 안 주느니 무슨 상관이니 한국 성우들 욕하고. 게다가 이런 애들이 온라인에는 친구가 너무 많네요. 왜 일빠랑 달빠들은 대부분 왕따인 걸까요?’와 같은 내용이다. ‘달빠’는 일본 게임사 타입문의 신봉자들을 지칭하는 속어라 한다.

33) 선택적 수용을 의미한다. 윤경원·나미수의 논문에서 인용. 한편 윤경원·나미수는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요인에 대해 내용적으로 문화적 근접성과 모더니티에 기반한 수용이라 정리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관찰의 결과로 보인다.

공간에서 ‘친일’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위악적인 폄하의 발언들로 이뤄진다.

동호회문화의 확산을 기반으로 문화의 마니아 경향은 분명 커지고 있다. 문화의 마니아화에 일본 문화상품이 잘 어울리는 것이다. 앞에서 일본 소설에 대한 예를 들어 말했던 것처럼 일본 문화의 수용은 일본 문화에서 느끼는 동질적이면서도 ‘국산’에 비해 더 ‘가볍고 명징한 감각’이라든가 ‘감각의 우선성’ 같은 요인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일본 문화 수용에서 마니아 요인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간 집요한 완성미의 추구하고 탈주하는 문화적 감각의 소유와 관계 맺는다. 그리고 이는 주류적이고 평균적인 감각과 구별되는 행동양식과 주체를 탄생시킨다. 그 주체는 무한한 향유를 위해 나아간다. 그런 주체의 행동양식은 당연히 획일적이거나 민족적인 행동양식에 비추어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이 특히 ‘일본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심성의 주류성을 거스르게 될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요컨대 오늘날 문화 수용 주체 중의 일부는 국가·민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심성 또는 전통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탈주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 열중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 주류문화의 억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를 우회한다. 그 동력은 향유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부족적인 추구이다. 그러나 이 우회는 완벽할 수 없다. 민족주의 자체도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향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지선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도 향유에 영켜들 수 있음을 월드컵 응원도 보여주었다.

5. 결론을 대신해

지금까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살피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가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한류’와 ‘일류’는 한국 민족주의가 일본과의 관

계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역설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의 문화 수용자 스스로에 의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일 양국의 문화가 향유되고 일상의 문화적 역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족주의가 이러한 향유에 간섭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간섭은 다분히 전통적인 ‘혐일’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힘에 의한 것도 있다.

그것이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자 지정학적 현실이다. 민족주의의 심성은 지극히 상호적인 것인 바, 1990년대 이후 우경화되면서 다시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의 터입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민족주의적 심성의 생산과 재생산이 한일 양국에게는 즉각적이며 상호간섭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남미나 이집트에서 부는 한류는 그 양상이 한국에 전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해진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바로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은 양국의 우익적 민족주의의 정서적 충돌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우익의 심리를 대변하며 ‘혐한’을 매개로 일본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일본 만화 『혐한류』도 그러하다. 이 만화에 흐르는 주요한 정서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람의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구 최대의 ‘혐일 국가’라는 ‘섬섬함’이다. 그것이 ‘혐한’해야 할 주요 근거라는 것이다. 이는 사카이 이즈미의 죽음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악플’ 중에서 서태지가 죽어도 일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심리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에서 『혐한류』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도서’로 분류되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나 쉽게 구해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해 지적될 만하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평화와 무관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의 일각에서도 일본 문화는 여전히 거부되고 있다.

또는 문화교류와 정치적 한일 관계는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도 많다. 식민주의의 종언이 ‘평화’와 무관하다는 현실을 한일 관계사는 보여준다. 따라서 특히 한일 관계는 문화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깨운다. 즉, 문화와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 문화(교류)는 여전히 군비경쟁과 국민국가 단위의 비윤리적 마키아벨리즘이 판을 치는 국제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는 그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한다거나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를 200여 대 구입하는 일, 평화를 해치는 ‘현실’이야말로 ‘문화’의 적이며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이야기하는 장애는 양국의 삶이 점점 수렴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수렴을 표피적인 것으로, 나아가 오히려 적대적인 것으로 만든다. 더 닳아가면서도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 Abstract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n-Japanese after 2002
and the Drift of Korean Nationalism

Cheon, Jeong-Hwan

The experience of colonial period (1910-45) made Koreans to react ambivalently against Japanese culture. Even after liberation, Korea could not help being under the Japanese cultural influence, however, on the surface, it has refused the influence due to anti-Japanese nationalism. This paradoxical situation came from coloniality that has not yet purged. Especially, even after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 normalization, Korean nationalism had contained Japanese culture from spreading, and ended up with 'the culture of covert imitation and secondhand translation.' The double-faced blockade against Japanese culture has lasted until the 1980's, and ceased in the 1990's.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changed fairly after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The Korean Wave' in Japan and 'the Japanese Wave' in Korea symbolically represent the current situation.

These cultural waves constitute a brand-new paradoxical situation which the Korean nationalism is situa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Japan. Meanwhile, Some cultural receivers like women, youth, and manias in Korea are escaping from the dominant nationalistic ideology, mind-set or tradition. People who are engrossed in Japanese culture try to avoid suppress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and nationalism as a ruling ideology. Their motives come from individualistic and maniac pleasure, but they cannot succeed fleeing from the nationalism, because nationalism hinders the escapers with its irrationality. Nationalism itself is a kind of maniac enjoyment. Nationalistic group behavior can be mingled into pleasure as seen in 'Red devils syndrome' in the 2002 World Cup. The nationalism of both Korea and Japan has interacted from their early development and have to go same way further. So cultural resemblance between the two nations which became more similar

after 2000's will fluctuate by the political 'reality' which causes cultural paradox. Again,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Japan reminds the fact that politics and culture is so intertwined.

Keywords: Nationalism, Popular Culture, Koran Wave, Japan Wave, Fandom,
Mania, juveniles Culture, Subculture, Otaku

참고문헌

- 金居修成. 2000.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37집.
- 김경일. 2006.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1930년대 서울의 혁명운동』. 푸른역사.
- 김언호. 1997. 『책의 탄생-격동기 한 출판인의 출판일기: 1985~1987』. 한길사.
- 김현미. 2003.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36-1호.
- 김현주. 2006.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소명출판.
- 로빈슨, M.(M. Robinson). 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 나남.
- 박찬승. 1992. 『한국 근대정치사상연구』. 역사비평사.
- 역사문제연구소. 1998.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윤경원·나미수. 2005.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 이연 외. 1997.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 나무와숲.
- 이중연. 2005. 『책, 사슬에서 풀려나다』. 해안.
- 장용걸. 2000.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을 통해서 본 ‘반일’의 역설적 의미에 대한 고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 _____. 2005. 『한국 청소년들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일고찰』, 《일어교육》, Vol. 33.
- 재일코리아연의 역사작성위원회. 2007. 『재일 한국인의 역사』. 신준수 외 옮김. 역사넷.
- 전재호. 2002. 『한국민족주의와 반일』.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2002년 하반기, 128~148쪽.
- 채명석. 2006. 『단도와 활』. 미래M&B.
- 천정환. 2006. 『‘황우석 사태’의 대중현상과 민족주의』. 《역사비평》, 76.
- _____. 2007. 『2000년대의 한국 소설독자 II』. 《세계의 문학》, 123호.
- _____. 2003.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 히라타 유키에(平田由紀江). 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 《사상계》, 《한겨레21》
 《문학동네》, 《21세기 문학》
 민족시인 이육사(<http://264.pe.kr>).
 네이버(www.naver.com).